

불거지는 성장 피크론...美 10년 국채 연 1.4% 아래로

서울경제

세계 최대채권운용사인 펩코는 최근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지금의 상황을 "팬더믹과 재정/통화정책 지원, 성장률이 최고점"이라고 평가 떠한 2분기 근원 인플레이션이 4% 가량으로 피크를 기록한 뒤 연말에는 3.5%, 내년에는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P2P금융의 변신...부실·사기 이미지 벗을까

비즈니스워치

P2P금융사업자들은 '온투법' 시행에 발맞춰 이미지 쇄신과 함께 중금리 대출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 재차 피력 온투법은 P2P금융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도록 규정

은행권, ESG경영에 사활...국책은행도 동참

글로벌이코노믹

은행권이 ESG 경영 강화하는 추세.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ESG에 중점을 둔 경영계획 수립, 관련 보고서 발간 등을 하고 있는 중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속성장을 수출한다'는 비전 아래 ESG경영 로드맵 발표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 사명변경 추진

더벨

케이뱅크가 공식 법인명을 '케이뱅크은행'에서 '케이뱅크'로 변경. 법인명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 출범 당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누적 고객수가 62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명에서 은행 명칭을 빼기로 결정

미니보험시장, 핀테크 탓에 변질 우려...미끼상품 난립하나

뉴데일리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대부분 핀테크 업체들 신청 미니보험 판매시 수익창출 사실상 불가능... 플랫폼 마케팅 주목적

지배구조 격랑 '캐롯손보' 유증 이후 주력 사업 강화 전망은

CEOSCORE Daily

캐롯손보 유증에 SKT 손떼...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전담 출범 이후 적자 행진... 신사업 강화 효과 "글쎄"

카카오 "초대형 IB 도전"… 카카오페이증권 상장 예고

MTS, 신용융자, 연금 자문까지… 자본 4조달성 방법은 IPO 뿐 보험도 차, 건강보험 진출 예고… 美레모네이드, 中중안보험 지향

해럴드경제

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지분 51% 확보… 최대주주 등극

뉴스

KTB투자증권은 유진에스비홀딩스(유진저축은행 100% 대주주) 지분 90.1%를 취득하기로 결의 이 중 KTB투자증권이 취득할 지분은 51%, 나머지 39.1%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가 매수할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